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촉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가동

국회서 장수·진안·곡성·봉화·옥천 5개 군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공동성명 발표

장수군(군수 최훈식), 진안군(군수 전춘성),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군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 권항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 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군 중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장수군을 비롯한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면 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매우 크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전



장수군(군수 최훈식), 진안군(군수 전춘성),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군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 권항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다”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5개 군은 지속적인

로 협력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날 오후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넸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며 “정부는 정책 다양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이다”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보다 많은 농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 기간 산림자원 보호 총력

무주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군청 산림복지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모니터링 요원, 산불감시원 등 90여 명을 선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무주읍 향토산, 설천면 뒷산, 안성면 샫갯골, 매방재산, 부남면 조향산 등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입산 통제(5,244ha) 및 등산로 폐쇄(39.5km) 정보는 산림청과 무주군 누리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 입구에는 산불조심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숲길 나들목 등지에도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무단출입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주력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산림조합,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은 물론, 경계 구간



의 인접 지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청, 군부대, 경찰, 소방, 무주국유림관리소, 무주군산림조합, 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투입되는 통합지휘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중괄반, 지상진화반, 보급지원반, 공중진화반 등 분야별 해당 임무 숙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불 초기 단계에서는 군청 산림복지과 직원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투입되며, 중형산불에는 의용소방대원 등 보조진화대,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돕는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최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길 위의 나침반’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길위의 나침반’은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탐색하며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통해 개인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직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돼 1회기



에 원예·공예 직업 체험을 진행했으며 남은 회기는 재방 실습을 통한 직업 체험, CPA 컬러 성격 기질 분석 검사, 취업 박람회 탐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29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오광석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앞



두고 의정자문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의정활동에 가장 든든한 길잡이”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부모준비학교 프로그램 성료

진안군은 관내 임신부와 예비 부모 등 10쌍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준비학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군가족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10월 28일까지 총4회에 걸쳐 진행됐다.

부모준비학교는 건강한 출산을 돕고,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아·심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육과정에는 △예비 부모의 역할과 관계 형성 △아이 기질과 성격이해 △분만 과정 및 출산 준비 △영유아 응급처치법 교육 등 이론 교육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영유아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부모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천천면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장수군 천천면은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대하는 공직자들의 응대 태도와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상황 대처법 △공감 대화기법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응대 요령 등을 배우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다.

또한 교육은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만족’을 주제로 진행돼,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정과 목소리 톤, 언어 선택, 응대 자세 등 기본적인 친절 매너는 물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과 조직 내 긍정적 소통 환경 조성 방법도 함께 다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공공비축미 첫 매입 시작

진안군은 29일 백운면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시작했다.

이날 첫 매입은 올해 진안군 공공비축미 매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40농가가 참여했다.

매입 현장에서는 올해 진안군 매입 품종인 신평진, 해답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백운면을 시작으로 진안군은 올해 총 5만2,189포대(40kg)를 매입할 예정이며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



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진안읍(11월 10, 14일), △용담면, 안천면(11월 12일), △동향면(11월 4일), △상전면, 정천면(11월 13일), △백운면(10월 29, 31일, 11월 4, 5일), △성수면(11월 3, 6, 7

일), △마령면(11월 3일), △부귀면(11월 10일), △주천면(11월 6일)으로 각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지정된 품종 외의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중간 정산금은 4만원/40kg으로 매입 직후 지급되며 최종 정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